폴란드 EU 가입 앞두고 정국혼란

□ 밀러 총리 5월 사임을 표명

- 지난 3월 26일 폴란드의 밀러(L. Miller)총리가 EU 가입 다음날인 5월2일에 사임할 것임을 표명함.

- 밀러 총리는 EU 가입조건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국민복지 부문의 지출을 제한하는 Hausner Package 등의 긴축재정 정책을 펴고 있었으나 그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연정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여 여야 양쪽에서 사임 압력을 받아 왔음.

  ○ 2001년 9월 총선이후 밀러가 이끄는 민주좌파연합(SLD)을 중심으로 3개당이 연정을 구성하여 출범한 현 정부는 농민당(PSL)이 농가보조금 문제로 2003년 3월 연정에서 탈퇴하여 의석수가 과반수 이하로 하락하였음.

  ○ 2004년 1월에는 내각을 개편하였으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였고 3월초에는 밀러 총리가 민주좌파연합(SLD)의 대표직에서 해임됨.

  ○ 3월 26일에는 마렉 보로프스키(Marek Borowski) 국회의장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SLD를 탈퇴하여 사회민주당(SDP)을 창당함.

  ○ 3월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지율은 5%를 기록하였음.

□ 야당은 조기총선을 요구

- 크바스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3월 29일 前재무장관이며 現이라크 과도통치 위원회의 이라크 경제정책 책임자인 마레크 벨카(Marek Belka)를 차기 총리로 내정하였음.

  ○ 벨카는 1997년과 2001년 두 차례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크바스니에프스키 대통령의 측근임.

- 現집권당인 SLD는 조기총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정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EU 가입 정책에 반대하는 양대 야당인 중도 우파 시민광장당(PO)과 농민당, 그리고 SLD로부터 분당한 사회민주당은 조기선거를 촉구하고 있음.

- 5월 1일 EU 가입후 6월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조기 총선 실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되며, 벨카 총리가 5월에 취임하더라도 SLD의 낮은 지지율과 내부분열 등으로 긴축재정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.

□ EU 가입은 일종의 경제적 모험

- 스위스의 Deka-Bank는 3월에 발표한 신규 EU 회원국의 가입준비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폴란드의 국가 재정이 불안한 상태이며, 4달전 분석치와 비교할 때 재무 건전화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음.

  ○ 유로화를 기본통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국가의 재정 적자는 GDP의 3% 이하, 공공채무는 GDP의 60%이하를 각각 유지하여야 함.

  ○ 2007년에는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슬로베니아의 4개국에서 유로가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폴란드는 10년후를 목표로 삼고 있음.

- 폴란드의 EU 가입은 취약한 재무구조와 실물경제로 인하여 경제적 모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.

〈표〉 폴란드의 재정수지와 실업률

단위 : %

구 분	2000	2001	2002	2003e	2004f
정부부채/GDP	37.4	38.3	43.4	47.4	51.9
재정수지/GDP	0.3	-4.3	-5.1	-4.6	-5.4
실업률	13.9	16.2	17.8	18.5	19.7

자료 : IFS, EIU

전문연구원 도 현 철 (☎3779-6676)
E-mail : loki@koreaexim.go.kr